

공동체 사역의 실제

순예배의 실제 1

목		도		다		같		이
신	양	고	백	다	다	같	같	이
찬		송		다		같	같	이
기	도	순	원	가	운	데	한	사
성	경	교	독	나	눔	중	심	장
성	경	공	부	나	눔	중	심	장
찬		송		다		다		이
현		금		다		다		이
주	기	도		다		다		이
광	고	및	친	교		다		장

순예배의 실제 2

경	배	와	찬	양	다	같	이
기	도		순	원	가	운	데
찬			송		다		한
성	경	교		독		다	같
성	경	공	부	나	눔	중	심
찬		송		다		다	같
중	보	기	도		다		같
마	무	리	기	도	순	원	가
현		금		다		운	데
광	고	및	친	교		다	

중보기도 중심 순예배의 실제

찬양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높이며 찬양한다.

환영 및 소개

순원끼리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순모임에 참석한 것을 함께 기뻐하며 환영한다.

말씀 묵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 속에서 중보기도의 이유와 방향을 찾아 서로 나누고 설명한다.

개인기도

스스로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헌신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영혼을 위한 기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구한다. 병들고, 연약하며,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이 때 신문 기사를 가지고 중보기도할 수도 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국내 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한다.

열방을 위한 기도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

침묵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집중한다.

찬송과 헌금

주기도

광고 및 친교

순예배 인도를 위한 실제적인 지침

말씀을 충분히 준비하고 간단하게 인도한다.

말씀을 부족하게 준비하면 도리어 순예배가 늘어지게 된다. 지루한 모임은 순원에게 영적인 힘을 줄 수 없다. 모임을 위한 말씀 준비는 다음 모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말씀 준비는 순모임이 끝난 시간부터 시작한다.

순모임이 끝난 뒤 다음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활하게 되므로, 한 주간 동안 겪는 모든 것이 인도할 내용과 관계된다.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언제 시작하는가도 더욱 중요하다.

순원 앞에서 솔직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알고 가르치는지 모르고 가르치는지 순원들은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더 연구하고 다음 시간에 나눌 것을 약속한다.

순원의 필요를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

순장은 순원이 모든 문제를 순장과 상의하도록 양육한다. 순장은 순원의 신앙 뿐만 아니라 순원의 생활에도 깊이 관심을 갖고 말씀으로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순장은 순원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되 순원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

정각에 시작해서 정각에 마치도록 한다.

실제로 순모임을 할 때 시간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순장은 시간을 순모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시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혹시 모임에 늦더라도 변명하기 보다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 일찍 출발하고 미리 도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동한 질문이 나와도 부드럽고 진지하게 대한다.

순원마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는 모두 그렇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끝까지 영적인 양육자의 자세로 순원을 돌보고 양육한다.

순모임을 마치면 빨리 일어서는 것이 좋다.

세상적인 이야기로 모임이 흐트러질 수 있다. 가능하면 순모임에서 믿음과 신앙생활 이야기만 나누도록 인도한다.

모임 후 다과는 순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

순장은 순모임 전에 장소를 제공하는 가정에게 친교와 대화를 위한 다과를 가볍게 준비하도록 교육한다.

순장의 아내는 순장이 아니다.

순장의 아내가 덕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면 순장의 영적인 권위도 함께 사라진다. 예배 모임 중 아내가 결론을 내리거나 순원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순장은 미리 도착하여 순원을 기다려야 한다.

순장은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꼭 일어서서 기쁜 모습으로 따뜻한 악수와 부드러운 미소로 순원들을 반겨주어야 한다. 침묵으로 인사하지 말고 간단한 생활 이야기로 관심을 보인다. 순원끼리도 자연스럽게 인사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순장은 순원들이 준비된 인상과 성실함을 느끼도록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한다.

순 헌금

순모임 중에 헌금 시간을 갖는다. 헌금의 30%는 건축, 선교 등의 목적 헌금으로 교회에 드린다. 나머지 헌금은 공동체 운영위원회의 감독 아래 순과 공동체 사역을 위해 사용한다. 순은 헌금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공동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동체 운영위원회는 12월 말 교회에 보고한다.

순장 모임

공동체별로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이며 공동체 담당 교역자가 인도한다. 이 모임에서는 순예배도우미를 가지고 그 주에 있을 순모임을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들을 의논하고 필요한 소식을 전달한다. 순장들은 이 자리를 통해 순의 제반상황을 공동체 담당 교역자와 의논한다.

순예배 도우미의 실제

공동체는 순장의 순예배 인도를 돕기 위하여 순예배 도우미를 매주 발행한다. 온누리교회 순예배도우미 1998년 7월 3일 자를 예로 제시한다.

1998년7월3일, 공동체순예배도우미

1.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2. 찬송가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메들리경배와찬양110장 「주 찬양합니다」)
3. 인도자가 순의 기도제목을 나눈 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4. 미리 정해진 분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 「로마서5장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 본문 말씀을 각자 3번 이상 읽고, 묵상합니다.
7. 모인 사람 가운데 몇 분이 묵상한 것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1.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1절)

요한복음3장17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인류가 저지르는 악한 일들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고 어떻게든 인류를 구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이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인류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피만이 죄에 꼭잡혀 있던 인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에베소서1장7절).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 당신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누리는 결과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1,2절)

2.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3,4절)

우리가 환난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suffering’, 즉 ‘고통’입니다. 고통은 건지기 어려우며, 모든 사람이 결코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부당하고 무익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언히 무익한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통에는 깊은 이유가 있게 마련이며, 고통 자체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픔이나 통증이 없다면 우리의 몸은 심한 노동이나 무리한 행동, 갖은 충격으로 인해 쉽게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삼가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통증은 일종의 경고등과 같은 것입니다.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망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따금 고난

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더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고난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시니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시편119편67,68절).

▪ 당신의 삶 가운데 환난 때문에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으며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긴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3.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얻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야고보서1장4절)고 말합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인내란 안락함 가운데는 얻을 수 없고, 어려움과 불편을 거쳐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환난이 온전한 인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연약한 인내가 더 강한 인내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자라고 있지 않다면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인격을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단련된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련된 인격 안에 소망을 갖게 하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37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희망은 절망보다 강하고, 희망은 절망을 이깁니다. 희망이 있다면 절망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린도전서1장7,8절)

▪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마음에 부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경험을 하였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6,8절)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완전해진 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거나 점잖기라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진 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 공동체 교회 봉사 안내

복 누리 공동체	교회 청 소	7월 11일
송과성남공동체	예수향기회	7월 6-11일
서대문통일공동체	새벽기도	7월 6-11일
동작관악공동체	주차봉사	7월 5일

■ 7월 공동체 예배 봉사 안내

	안내위원		현금위원	
1부	이촌소망5,6,서빙고화평3,5순		서빙고화평1,2,4,온유1순	
2부	본당	영등포11,12,금천1,2순	금천3,광명1,2,3순	
	두란노	광명4순	구로1순	
3부	본당·선교관3층	구로2,3,4,부천1,2순	부천3,4,부평1,2,인천순	
	두란노·한동홀	강서1,2순	강서3,4순	
4부	강서5,6,7,양천1순		양천2,3,4,5순	

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쩌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시는 것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무엇을 확증하십니까? (8절)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결단을 하게 합니까?

순 연합예배의 목적

공동체는 폭넓은 교제와 사역을 위해 다락방 또는 공동체 단위로 연합예배를 갖는다.

순 연합예배의 실제

순 연합예배는 매월 1회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행한다. 다락방별 모임은 공동체 연합예배와 겹치지 않게 진행한다. 모임의 장소는 교회에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공동체 세례식

온누리교회의 세례 준비자들은 교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 준비자가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공동체는 영적 몸의 지체로서 받아드리기 위해 중보 기도하며 세례식을 준비한다. 세례식은 공동체 별로 진행되며 세례받는 사람의 전도자와 양육자가 함께 참석하고 순원들과 더불어 영적 거듭남의 증인이 된다. 공동체에서는 간단한 축하 순서를 마련하여 세례식이 축제 분위기가 되도록 한다.

○○○ 공동체 6월 순연합예배 및 세례식

1998년 6월 26일 사회 : ○○○ 다락방장

찬 양 다 함 께
기 도 ○ ○ ○ 다 락 방 장
세 례 식 (유아세례 : ○○○, ○○○) ○○○ 목사
말 씬 고 린 도 후 서 8 장 1-12 절 ○○○ 목사
“마음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헌 금 (헌 금 찬 송 : 5 1 8 장) 다 함 께
헌 금 기 도 사 회 자
광 고 사 회 자
찬 송 4 0 9 장 다 함 께
축 도 ○ ○ ○ 목 사

공동체 소식

6월 28일(주일) 오전 9시부터 2천1만 광장에서 음식 바자회가 있습니다. 다락방별로 많이 오셔서 교대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월)부터 7월 1일까지 온누리가족행복잔치가 열립니다. 많은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가족행복잔치 셋째날(7월 1일)은 ○○○ 공동체가 안내를 담당합니다. 각 순에서 2명씩 저녁 6시까지 본당 1층 로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7월 6-11일 : 본당 새벽기도회 / 7월 20-25일 : 예수향기회 / 8월 1일(토) : 교회청소 / 2일(주일) : 주차안내 / 10-15일 : 비전과 리더십 축제

공동체 세례식의 실제

공동체 사역을 위한 지침

고른 성장

공동체에 속한 모든 순이 골고루 균형있게 성장토록 유도해야 한다. 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순은 함께 성숙하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

남성사역

교회에서 남성들이 소외되기 쉽기 때문에 공동체는 남성을 배려하는 사역을 준비한다.

현장중심의 제직훈련

순장 등 제직을 위한 훈련은 현장사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회 행사 참여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가정사역, 일대일제자훈련 등 교회 전체로 진행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종보기도

기도가 프로그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공동체 심방 사역

공동체 사역 가운데 심방 사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기 심방

환영 심방

환자 심방

위기 심방

입주/개업 심방

공동체 경조사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경조사에 가족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야 한다.

공동체 상례

사망 소식 통보

공동체 성도가 별세하거나 상을 당한 성도의 가정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순장이 이 사실을 확인하여 공동체 담당 목사와 교역자실의 공동체 담당 간사에게 연락해야 한다(교회 전화번호 793-9686 #234). 즉시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장은 평소에 권찰과 순원을 교육시킨다. 이 때 순장이 별세 교인 성명, 별세 일자, 상가 혹은 빈소의 위치, 상주 성명을 함께 알려주어야 공동체 담당 교역자가 상례를 준비할 수 있다. 공동체 담당 교역자는 밤늦은 시간이라도 상례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상가로 간다. 순장이 순원에게 연락하는 것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상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순장은 순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조화 혹은 조의금 지급

연락을 받은 공동체 간사는 상가 혹은 빈소로 조화를 보낸다. 별세 교인의 집안이 전통적인 불교 집안이었거나 교회식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등 조화를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조의금을 보낼 수도 있다. 조의금 액수는 교회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문상 예절

빈소에 방문하면 먼저 영구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영구 앞에서 배례는 하지 않는다. 기도를 마친 뒤 상주와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위로하며 인사한다.

장례 관련 사항

공동체 목사 : 공동체 담당 목사는 별세 교인의 유가족이 친족 친구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는 일을 돕는다. 상가에서 사용할 성가 테이프를 미리 준비해놓는다. 상가용 성가 테이프로는 경배와 찬양의 침묵기도 등 묵상과 기도를 돕는 것이 좋다. 검은색 넥타이는 3개를 준비해서 집, 자동차, 교회 책상 등에 보관하도록 한다. 성경책은 검은색 성경, 찬송가 합본이 좋다.

가족 : 유가족은 별세 교인의 사진을 확대하여 영정을 준비한다. 수의, 관 등 장례 물품은 유가족들이 정하도록 하되, 검소한 것을 정한다. 유가족들은 무리하여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검소한 검정 옷을 입으며, 한복일 경우 백색 또는 흑색 상복이 모두 가능하다. 장지는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운명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 장지에 가서 장지를 알아보고 곧바로 장지를 확정하도록 한다. 입관예배부터 왼쪽 가슴에 상장을 단다. 교회 예식으로 할 경우 영구 앞에 고인의 사진을 세우고, 과일, 어포 등 제상과 음식을 차려 놓지 않도록 한다. 향은 제사 습관으로 피워서는 안되며, 악취 제거의 목적으로 피울 수는 있다. 성가 테이프를 준비하여 빈소에서 밤을 새우거나, 영구차로 운구할 때 계속 틀어둔다. 상가에서 밤을 세울 때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한다. 음주와 건전하지 않은 오락을 피하도록 한다. 동사무소에서 매장 신고증을 교부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망진단서¹⁾, 묘지사용승락서, 고인의 주민등록증.

손 : 손은 상중에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객들을 접대하기 위해 손원들이 당번을 정하는 것이 좋다.

임시 초염

공동체 담당 목사는 장의사가 초염을 하기 전, 먼저 시신을 똑바로 누이고, 머리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면에서 볼 때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임시 초염을 한다. 시신이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살며시 쓸어서 감기게 하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을 다물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면 반쯤 가린 두루마리 휴지를 납작하게 만들어 턱밑에 끼운다. 이 때 머리 밑에 베개를 받친다. 두 손은 배 위에 십자가가 되도록 모은 후, 붓대로 묶는다. 두 발은 발가락이 하늘을 향하게 한 뒤 뒷꿈치가 서로 마주 닿을 수 있도록 하고 양 발 엄지발가락을 붓대로 묶는다. 이 때 줄을 길게 하여 발가락을 묶은 줄과 양손을 묶은 부분이 연결되게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시신이 똑바로 곧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방바닥은 덮지 않도록 불을 빼고 난방을 중지한다. 얇은 요를 한 장 깔고 알콜, 솜, 붓대, 빗을 준

1). 병원에서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발급에 문제가 없지만, 60세 미만인 경우 집에서 사망하면 일반 병원에서 의사가 출장을 꺼린다. 이 때 일반 병원을 통하지 않고 사망확인서를 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동사무소에서 인후증명서 양식을 얻어, 보증인 2인의 도장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사무소로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에서 사망확인서를 떼어준다. 다른 방법은 인후증명서에 반장과 통장의 도장을 받아서 한번이라도 다닌 병원으로 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한의원의 한의사가 나와서 사망을 진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떼는 경우도 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장의사가 입관을 꺼리기 때문에 입관 전에 이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비해서 알콜에 숨을 묻혀 얼굴과 발을 닦고 빗으로 머리를 가지런히 빗는다.

빈소 준비

고인이 성도인 경우 흰색 국화를 준비하여 조객들이 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헌화할 경우 준비된 화병에 꽃거나 꽃의 줄기를 출입구 쪽으로 하고 꽃이 시신을 향하게 상위에 놓는다. 집에 빈소를 준비할 경우 때문에 '상중'이라고 붙이고, 상가 길목에도 '○○○ 상가'라고 화살표시와 함께 붙여서 조객이 찾기 쉽게 한다.

위로예배

별세 당일 공동체 담당 목사는 유가족과 상의하여 시간을 정하고 위로예배를 드린다. 위로예배는 입관예배를 드린 당일 오후 8시 남자들이 참석하기 좋은 시간을 택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 위로예배는 가운을 입지 않고 인도해도 괜찮으며, 예배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예배를 마친 후 유가족과 조객과 약간의 다과를 나누며 고인의 이야기와 상례의 중요성을 함께 나눈다. 순장은 소속 순원과 다락방장에게 연락하여 다락방 순원들도 함께 참석하도록 한다. 다락방 모든 순원은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고 조문한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제직은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에 반드시 참석한다. 해당 순원은 하관 예배를 드린다. 위로예배를 드린 후 입관 예배, 천국환송 예배(발인 예배), 일자, 시간, 장소를 확인하여 교회에 통보한다.

입관 예배

입관은 사망 시간 24시간 후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병원에서 시간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유가족과 상의하여 형편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입관 예배 시간은 입관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정하여, 예배 전에 입관을 마친다. 입관은 목사가 기도한 뒤 시작하는데, 이 때 목사는 입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침묵을 지켜야 한다. 목사는 검정색 가운과 흰장갑을 착용하고 입관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입관이 끝난 뒤 유가족은 상복을 입고 왼쪽 가슴에 상장을 달도록 한다. 입관예배는 빈소에서 진행하되 목사는 영정의 오른쪽에 서서 인도하며, 유족이 오른쪽에 앉게 하며, 조객은 왼쪽에 앉게 한 후 진행한다. 예배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예배순서는 예식서를 참고하되 개인적으로 다른 순서를 진행할 수도 있다. 예배를 바친 후 참석자들에게 위로예배와 천국환송예배 시간을 광고한다. 광고는 호상²⁾이 있는 경우는 호상이, 호상이 없는 경우 목사가 직접 광고하도록 한다.

천국환송예배(발인 예배)

온누리교회에서는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른다. 목사는 천국환송예배를 드릴 때 검정색 가운과 흰장갑을 착용한다. 예배시간은 장지 도착시간이 오전 11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즉, 장지까지 2시간 걸린다면 오전 8시에 예배를 시작하여 20-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운구를 시작하여 8시 40-45분에 출발하도록 한다. 순원들이 운구를 도우며, 다른 성도들은 운구할 때 찬송을 부른다. 이 때 적절한 찬송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이다. 순원들은 장지로 가는 길에 성가 테이프를 들려주고 간식을 나누어주는 일과 취사와 배식을 돕는다. 발인일이 주일이 될 경우 다음 날 발인하도록 한다. 천국환

2). 교인이나 친척 중 목사의 지시에 따라 상례 일체를 총괄하는 사람

송예배를 인도하려 출발하기 전, 차편을 점검한다. 병원에서 장지로 출발할 경우는 귀가하여 위로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승용차를 병원에 세워두지 않는 것이 좋다. 목사는 미리 천국 환송예배를 위한 순서지를 준비하는데, 순서지에 하관예배 순서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미리 대표기도자를 선정하고 공동체 가족들의 찬양을 준비하고, 다른 교회의 교역자가 참석할 경우 축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운구

천국환송예배가 끝난 뒤, 신속하게 운구를 준비하고, 영정을 든 사람³⁾이 맨 앞에 서고, 목사가 다음에 서며, 운구위원, 유가족, 조객 순으로 걸어간다. 이 때 조객들은 뒤에서 위로의 찬송을 부르며 따라간다. 관이 장의차 안에 안치되면 유가족은 장의차 뒤쪽에 앉고 목사는 반드시 유가족과 함께 장의차를 탄다⁴⁾. 목사는 오른쪽 맨 앞에 앉아서 조용히 동행한다. 모든 길을 운전기사에게 맡기고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선도차와 마지막 차에 핸드폰을 준비해서 전체 대열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하관예배

장지에 도착하면 영정을 든 사람이 앞에 서고 목사, 운구위원, 유가족, 조객 순으로 묘소까지 이동한다. 목사는 묘역하는 분이 땅을 파고 하관하고 세 번째 횡대를 열어놓을 때까지 조용히 지켜본다. 묘역하는 분이 예배드리라고 하면 하관예배를 시작한다. 영정은 묘역을 하고 있을 때 묘의 위쪽에 세워두어도 좋다. 목사는 묘의 위 오른쪽에 서고, 유가족은 오른쪽에 조객은 왼쪽에 관을 내려다 보며 둘러선다. 이 때 남겨두었던 천국환송예배 순서지를 나누어준다. 설교 후 축도 전에 취토를 한다. 취토 순서는 유가족 서열대로 하고, 조객은 취토대신 헌화할 수 있다. 헌화할 때는 은박지를 벗긴다. 취토를 마치면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친다. 조객은 헌화, 취토를 할 때 찬송을 부른다. 이 때 적절한 찬송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관예배를 마치면 목사는 곧 산에서 내려온다.⁵⁾

귀가위로예배와 '첫 성묘'

하관예배를 마친 뒤 산에서 내려오면 점심식사를 하고 곧 귀가한다. 목사는 상가에 가서 간단하게 5-10분 정도 귀가위로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마친 후 유가족이 주일 몇 부 예배를 드릴 것인지 확인하고, 그 예배 때 성도 앞에서 인사하도록 준비시킨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삼우제를 지키지 않으며 '첫 성묘'라고 부른다. 꼭 3일만에 가야할 필요는 없고 장례가 끝난 후 가까운 시일 안에 온 가족이 성묘하도록 한다. 공동체 담당 목사는 주보에 광고하고, 다음 주일 약속한 예배 시간에 유가족들이 왔는지 확인한 뒤 예배 시간 중에 위로하도록 준비한다.

3).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영정은 만사위가 들도록 한다. 만사위가 없으면 손자가 들도록 한다.

4). 목사가 장의차를 타는 이유는 유사시 선도차와 분리되었을 경우 시신 곁에 항상 주례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5). 목사가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이유는 묘역을 하는 분이나 유가족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신앙을 가진 유가족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유가족이 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것이다.

조의금

공동체 조의금 액수는 공동체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동체 예식

공동체에서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집례할 수 있다.

돌 축하예배

약혼 예배

결혼 예배

수연 축하예배

고희 축하예배

천국환송예배의 실제

故 朴 ○ ○ 聖徒

天國歡送禮拜

日 時 : 1997년 5월 15일 오전 8시

場 所 :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안실

主禮者 : ○ ○ ○ 목사

■ **故 朴 ○○ 聖徒 略歷**
 고 박○○ 성도는 1928년 8월 5일 평안도 평양시 이운동에서 출생하여, 평양○○보통학교와 평양○○보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5세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평양시에서 ‘구원병원’을 개업하고 운영하다, 공산통치를 피해 1948년 가족을 이끌고 월남한 박○○ 성도는 부산시 서구 토성동에서 ‘구원병원’을 개업하고 평생 진료에 힘썼습니다. 박○○ 성도는 1990년 은퇴하기 전까지 서구보건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계속 진료하다가 1997년 5월 15일 오후 9시 10분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7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故 朴 ○○ 聖徒 遺家族**

	처	지○○			
	자	박○○	자부	정○○	
		○○		김○○	
		○○		김○○	
		○○		조○○	
	손자	박○○	손녀	박○○	
		○○		○○	
		○○		○○	
		○○		○○	
				○○	

故 朴 ○○ 聖徒 天國歡送禮拜

- 日 時 : 1997년 5월 11일 오전 8시
- 場 所 :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안실
- 主禮者 : ○ ○ ○ 목사

목상기도		다 갈 이
찬 송	289장	다 갈 이
기 도		○○○장로
성경봉독		○○○목사
말 씬	요한복음14장1-4절	○○○목사
찬 송	543장(1,2,3절)	다 갈 이
광 고	상주(호상) 혹은	○○○목사
축 도		○○○목사
헌 화		다 갈 이

■ 요한복음14장1-4절

1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 찬송가289장

1.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후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2.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써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뵈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3. 앞서 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 찬송가543장(1,2,3절)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후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웁니다
2.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 의심에 안개 걸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웁니다

故 朴 ○ ○ 聖徒 下官禮拜

- 찬송541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빛나는 집」
- 기도 : ○○○ 장로 / ■ 성경본문 : 시편23편

공동체 프로그램의 실제

공동체마다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 수련회

공동체 아웃리치

공동체 체육대회

공동체 소풍

공동체 등산

공동체 성탄축하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 별로 실행하는 사역은 다음과 같다.

예수향기회

하나로

번동 코이노니아

열린이웃

서빙고 공부방

남영동 공부방

삼성병원사역

지역새벽기도

주차봉사

교회청소

성찬봉사